

아파트 규모별 거주자의 수납 요구 A Study on Resident's Needs for Storage according to the Unit Size in Apartment

이지순* 박지현** 윤정숙***
Lee, Ji-Soon Park, Jee-Hyun Yoon, Chung-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sident's needs for storage according to unit size. In order to achieve our goal,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obtained as follows: 1) In research on consciousness and attitude about the storage, Residents tended to keep the goods of no use and preferred to arrange neatly rather than use conveniently. 2) In research on the storage needs, needs for the built-in furniture in all apartment sizes showed highly and residents wanted a space for the exclusive use of the storage.

Keywords : the storage of apartment, needs of residents, unit size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아파트가 점차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주거형태로 보편화되면서 공간의 제한성과 획일화로 인한 수납공간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존의 주택유형에서는 각자의 이용에 맞도록 공간의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였고 별도의 수납공간에 대한 고려로 수납에 대한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의 경우는 주어진 공간 안에 생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납공간에 대한 계획을 소홀히

해왔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공간 구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이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거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전반적인 소득의 증대에 따라 수납물품의 종류와 양이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의 수납물품의 증가는 수납문제를 더욱 가중시켰고, 기존의 획일화된 평면구조로는 더 이상 만족스러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수납문제는 공간의 규모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므로 향후 건설될 아파트 수납공간 계획에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규모에 따른

*정회원, 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
**정회원, 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
***정회원,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학술박사

거주자들의 수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그 차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될 필요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택규모별로 수납에 대한 거주자 요구를 파악하여 아파트 수납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외의 아파트 거주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2001년 1월 5일~1월 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1월 13일~1월 31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배포하였고, 그 중 분석에 유용한 23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납에 대한 거주자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내용은 크게 수납의식 및 태도, 수납요구, 거주자 일반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PC+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 조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가구특성으로 연령, 학력, 직업, 가족수, 가족생활주기, 월평균생활비를 조사하였다. 세대주의 평균연령은 46.6세이며 40~50대가 62%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졸업이 76%, 대학원졸업이상이 20%로 학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은 사무직 및 공무원이 50%로 가장 많았고, 가족수는 4명인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1~4명인 경우가 전체의 93%를 차지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가족 형성기가 23%, 자녀교육기는 30%, 자녀성년 및 노년기는 47%로 분포하고 있었다.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00~300만원 미만인 40%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n=230, f(%)

항 목		남편	부인
연령	20대	6(2.7)	12(5.4)
	30대	54(24.4)	58(26.3)
	40대	68(30.8)	78(35.3)
	50대	69(31.2)	61(27.6)
	60대 이상	24(10.9)	12(5.4)
	계	221(100.0)	221(100.0)
학력	고졸 이하	10(4.8)	27(12.9)
	대졸	159(75.7)	162(77.1)
	대학원졸	41(19.5)	21(10.0)
	계	210(100.0)	210(100.0)
직업	단순노무직, 기능직	2(1.0)	2(1.0)
	판매서비스직	24(12.6)	4(2.1)
	사무직 및 공무원	95(49.7)	22(11.4)
	전문, 기술직	46(24.1)	40(20.7)
	행정관리직	12(6.3)	-
	주부	1(0.5)	120(62.2)
	기타(퇴직, 학생 등)	11(5.8)	5(2.6)
계	191(100.0)	193(100.0)	
가족수	1명		2(0.9)
	2명		28(12.5)
	3명		43(19.2)
	4명		134(59.8)
	5명		14(6.3)
	6명 이상		3(1.3)
계		224(100.0)	
가족생활주기	가족형성기		51(22.7)
	자녀교육기		68(30.4)
	자녀성년및노년기		105(46.9)
계		224(100.0)	
월평균생활비	100만원 미만		17(7.5)
	100-200만원 미만		78(34.4)
	200-300만원 미만		91(40.1)
	300만원 이상		41(18.0)
계		227(100.0)	
주택소유형태	자가		172(75.1)
	전세		53(23.2)
	기타		4(1.7)
	계		229(100.0)
주거기간	1년 미만		39(17.0)
	1-2년 미만		56(24.5)
	3-4년 미만		35(15.3)
	5년 이상		99(43.2)
	계		229(100.0)
주택규모	20평대		64(27.8)
	30평대		69(30.0)
	40평 이상		97(42.2)
	계		230(100.0)

무응답 제외

조사대상가구의 주거특성으로 주택소유형태, 거주기간, 주택규모를 조사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75%, 전세인 경우가 23%로 나타났다.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2년 미만인 2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주택의 규모에 따른 수납실태 및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선정시 주택규모를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동일하게 표집하고자 하였으나 표집 결과, 20평형대는 28%, 30평

형대는 30%, 40평형대 이상이 42%로 나타났다.

2. 수납 의식 및 태도

수납 의식 및 태도 조사는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어느 쪽도 아니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Likert 척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납 의식

수납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 24개의 항목으로 질문한

표 2. 수납의식

n=230

항 목	20평	30평	40평	Sig.
자주 입지 않는 의류도 각 침실에 수납하는 것이 좋다.	2.7	2.6	2.5	.748
침구류도 각 침실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3.7	3.8	3.7	.688
각 방에는 제철의 의류만을 수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간에 모두 수납하는 것이 좋다	3.6	3.4	3.7	.424
자주 입는 의류는 외관상 좋지 않아도 편안하게 행거나 옷걸이에 두는 것이 좋다	2.7	2.3	2.8	.008**
속옷류는 샤워후 편안히 입을 수 있도록 욕실내에 수납하는 것이 좋다	2.6	2.8	2.8	.419
옷장의 문은 접이문보다는 미닫이문이 좋다	3.1	3.4	3.2	.187
의류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더라도 모자나 가방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행거가 필요하다	3.7	3.6	3.8	.184
자녀침실의 경우는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가용품을 수납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3.4	3.4	3.5	.657
불박이장은 부부침실보다는 자녀침실에 설치하길 원한다	3.2	3.0	3.3	.121
공간을 더 차지하더라도 자주 보지 않는 책들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문이 달린 책장에 수납하는 것이 좋다	3.9	3.5	3.7	.075
자주 보지 않는 책들은 각 방보다는 발코니나 실내창고 등에 수납하는 것이 좋다	3.0	2.9	3.0	.565
다른 공간의 적어지더라도 욕실과 연결된 파우더룸이 필요하다	3.4	3.6	3.4	.523
현관이 좁아지더라도 신발장을 크게 계획하여 자주 신는 신발들도 보이지 않도록 신발장에 수납하길 원한다	3.6	3.6	3.8	.243
현관 근처나 신발장에 주택내에서 사용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수납가구가 필요하다	3.5	3.3	3.4	.629
부엌용품은 수납량이 적어도 눈에 잘 보이도록 수납하는 것이 좋다	2.3	2.3	2.5	.125
거실이 넓어진다면 부엌의 수납공간이 줄어도 좋다	2.6	2.3	2.5	.237
부엌의 작업대가 좁아져도 부엌내 수납공간이 현재보다 많이 필요하다	3.1	2.9	2.7	.090
유지관리가 힘들어도 자주 사용하지않는 가전제품, 교자상, 부피가 큰 조리도구는 부엌외 공간에 수납하길 원한다	3.7	3.5	3.4	.336
전자밥솥, 커피메이커, 토우스터 등을 식탁이나 사용하는 장소에 놓기보다는 한곳에 모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4	3.3	3.2	.504
강통류, 라면, 음료수, 쌀, 채소류 등의 식품 저장용 수납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4.0	4.2	4.0	.188
여분의 세제류와 휴지 등을 실내창고보다는 다용도실에 수납하길 원한다	3.7	3.9	3.8	.505
카펫트, 돗자리, 히터, 선풍기등의 계절용품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므로 실내창고보다는 발코니에 수납하길원한다	3.6	3.6	3.7	.876
청소도구는 실내창고보다는 발코니에 수납하길 원한다	3.1	3.0	3.1	.913
스포츠용품이나 여가와 관련된 물건들은 발코니보다는 실내창고에 수납하길 원한다	3.7	3.3	3.4	.073

** p < .01

응답결과를 일원변량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3.4로 수납에 대한 의식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항목은 표 2와 같다.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깡통, 라면, 음료수, 쌀, 채소류 등을 위한 식품 저장용 수납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항목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엌용품은 수납량이 적어도 눈에 잘 보이도록 수납하는 것이 좋다'와 '자주 입는 의류는 외관상 좋지 않아도 편안하게 옷장 밖의 행거나 옷걸이에 두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 점수가 낮게 나와 사용의 편리함보다는 정리정돈을 원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수납태도

일반적인 수납태도를 5점 척도 10개의 항

표 3. 수납태도

n=230

항목	20평대	30평대	40평대	평균
물건들을 어디에 수납하였는지 잘 안다	2.7	2.9	2.9	2.8
물건들은 사용후 제자리에 놓는다	3.8	3.9	4.0	3.9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주기별로 정리한다	3.0	3.2	3.3	3.2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해도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어선 안된다	3.1	3.1	3.5	3.2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처분한다	2.9	2.9	2.7	2.8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면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물건을 수납하지 않는다	3.1	3.1	3.2	3.1
각 방에는 되도록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만을 수납한다	3.8	3.7	3.7	3.7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실내창고, 다용도실, 베란다 등에 수납한다	4.2	4.0	4.2	4.1
효율적인 수납을 위하여 수납장에 박스나 바구니 등을 이용한다	3.8	3.4	3.6	3.6
물건 구입시 수납할 공간을 고려하여 구매한다	3.2	3.2	3.3	3.2

목으로 질문한 결과, 20평대의 평균은 3.4, 30평대는 3.3, 40평 이상은 3.4, 전체평균이 3.4로 수납태도가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 대부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실내창고, 다용도실, 베란다 등에 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처분하지 못하며, 물건들을 수납한 장소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의 편의성보다는 외관상 보기 좋게 정리정돈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납 요구

1) 수납가구유형에 대한 요구

수납가구유형에 대하여 옷장, 침구장, 욕실장, 신발장, 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맞춤형 불박이가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납의 기능보다는 장식의 기능이 강한 장식장에 대해서는 20평대는 이동식 가구를, 30평대는 맞춤형 불박이 가구를, 40평 이상은 기성품 불박이 가구의 비율이 높아 규모에 대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규모와 비교하여 자가의 비율이 낮은 20평대(51.6%)는 장래이사에 대한 고려로 이동식 장식장을 원하고, 79.4%가 자가인 30평대는 실용적인 맞춤형 불박이 가구를, 87.6%가 자가인 40평 이상은 장식성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보다는 고급스러운 기성품 불박이 가구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불박이 가구에 관한 요구

(1) 불박이 가구 설치

기존의 옷장을 버리더라도 안방에 불박이 가구를 설치하겠느냐는 질문에 세 집단에서 50%이상이 안방에 불박이 가구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박이 가구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평대에서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1.3%로 다른 평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평대가 자가의 비율과 월평균 생활비가 다른 평형대에 비해 낮으므로 설치비용과 장래 이사에 대한 고려로 불박이 가구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불박이 가구를 설치할 경우 방의 크기가 작아져도 설치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20평대에서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30평대와 40평 이상에서는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박이 가구를 설치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면적이 부족한 20평대는 불박이장 설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불박이 가구 설치 시 고려 요소

주택의 모든 공간에 설치하는 불박이 가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전체 실내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이 다양해야 한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는 필요에 따라 수납가구 내부 선반의 높이나 폭의 조절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3) 불박이 가구 공급방안

불박이 가구에 대한 공급방안에 대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입주 후 거주자가 선택하고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불박이 가구의 크기와 위치는 정해지고, 디자인은 거주자가 결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박이 가구 설치의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그 크기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수납문제 해결방안

아파트의 수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1순위로 20평대는 불박이장의 내부를 거주자가

자유롭게 계획한다가 높게 나타났고, 30평대와 40평 이상에서는 각방에 불박이장을 설치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0평대는 역시 불박이장 설치로 인한 생활면적의 감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순위에서는 모든 평형대에서 주택 내에 옷방, 실내창고 등의 수납전용공간을 도입한다가 높게 나타나 대부분 보다 적극적인 수납방안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실내창고에 관한 요구

(1) 실내창고 설치의사

거실이나 침실의 면적이 좁아지더라도 실내창고를 설치할 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 20평대와 30평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40평 이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수납공간이 비교적 많은 40평 이상에서는 실내창고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실내창고에 수납하길 원하는 물건

실내창고가 설치된다면 수납하길 원하는 물건에 대해 1순위로 20평대는 부엌용품이, 30평대는 여가 및 스포츠용품이, 40평 이상은 청소용품이 가장 높게 나타나 규모별로 수납창고에 수납하고 싶은 물품에 차이가 나타났다. 2순위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계절용품을 수납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계절용품을 위한 실내창고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규모별로 수납에 대한 거주자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상에서 살펴본 규모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결론 및 수납요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수납의식과 태도에서는 대부분의 거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보관하고자 하는 특성이 강하며, 사용의 편의성보다도 외관상 보기 좋게 정리정돈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용도실이나 앞, 뒤 발코니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보관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선반형 가구보다는 붙박이 가구와 같이 내부수납이 가능한 수납가구유형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2) 수납요구 중 붙박이 가구에 대한 요구는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생활면적이 작은 20평대는 다른 평형대에 비해 설치 의사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설치시 거주자에 따라 그 크기와 디자인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붙박이장 내부의 가변성도 고려해야 한다.

수납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요구로는 수납전용공간 도입 등 적극적인 수납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공급 계획시부터 수납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서 실내창고 설치를 들 수 있는데, 40평 이상보다는 20평형대와 30평형대에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고로 이용할 수 있는 여분의 방이 없는 20-30평형대에서는 dead space 등을 활용한 실내창고를 설치하여 부엌용품이나 계절용품, 청소용품 등의 다용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향후 아파트 공급 시 아파트 규모에 따라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한 차별

적이고 체계적인 수납설계가 필요하며, 또한 아파트가 주요 주거형태로 정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납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1. 김소영(1995), 아파트 붙박이 수납가구의 사용실태 조사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 김수정(1996), 수납 생활을 통해서 본 주거 공간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3. 김한수(1998), 아파트 내·외부 공간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8).
4. 심현숙(1995), 아파트 거주자의 수납가구에 관한 만족도,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5. 정미란, 안옥희(1992), 국민주택규모에 있어서 거주자의 수납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3(1).
6. 조성희(1992), 집합주택의 수납시설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8(7).
7. 조수경(2001), 평형별로 살펴본 아파트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8. 지승민(1998), 아파트 학생방의 수납공간과 수납물품 소유 분석 및 수납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9. 최승희, 임춘삼(1998), 아파트 거실과 식당, 부엌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
10. 홍리경(1997), 아파트의 수납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